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전요섭(Ph.D. 성결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작금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치료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이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 구원하려는 노력이 기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본적으로 인간성 회복 또는 영성까지 온전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상담학은 심리학적 치료기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인해서 기독교상담의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소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¹⁾ 그럼으로써 현대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과의 구별선이 모호해지거나 불분명해진 상태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성경적 기독교상담이라고 할 수 없다.²⁾ 성령이야말로 기독교상담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제공하는 근원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회장(상담전문가감독상담사) 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주임교수

- 1) Ralph G.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7), 216. Ralph Underwood는 기도, 대화, 성경, 화해, 세례와 성찬 등을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했으나 이 여섯 가지로 은혜의 방편을 제한 할 수는 없다. Underwood, *Pastoral Care and the Means of Grace* (Minneapolis: Fortress, 1993), 7. Gary R. Collins는 은혜의 방편을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예배, 설교, 기독교교육, 상담, 봉사, 교제, 전도, 영성훈련, 개인의 경건생활 또는 가정생활을 망라하는 것들로써 이런 것의 활용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cf. Collins,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IL: Creation, 1976), 213-223. Hulme은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로 이해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복음, 구속의 메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시라고 보았다. William E. Hulme, *Counseling & Theology* (Philadelphia: Muhlenberg, 1956), 202. 또 John Wesley는 성만찬, 세례, 기도, 성경연구, 금식, 애잔, 찬송, 예배 등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았다. N. Burwash, *Wesley's Doctrinal Standards* (Salem, OH: Schmul, 1988), 152.
- 2)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70), 21.

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일반상담과의 차별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기 어렵다.³⁾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신학이 성령에 대한 견해를 동일하게 갖지 않는 것처럼,⁴⁾ 모든 기독교상담학이 성령을 인정하거나 은혜의 방편으로 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Millard J. Erickson은 분석하기를 “성령은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교리가 되었다.”⁵⁾고 진술했는데 이는 기독교상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제로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것만을 신뢰하려는,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매우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나 해석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인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누구의 신학적 이해나 정의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나 달리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⁶⁾ 모든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의 효과적인 변화에 있지만 성경적인 기독교상담에서는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변화에 대해 의미가 없다는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⁷⁾ 그러므로 성령을 떠난 상담은 유익된 상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역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이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 분석, 회복, 변화시키는 사역의 주체임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3) David G.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92), 60.

4) 마원석은 신학 내에서도 성령론의 견해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진술했다. (1) 에큐메니칼 성령론, (2) 복음주의적 성령론, (3) 오순절적 성령론이다. 첫째는 성령의 전통적인 입장보다는 사회학적 면을 강조하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는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현재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순절로 돌아가자는 성령이해이다. 마원석, “구약의 관점에서 본 현대 성령론” 한국오순절신학회 「논문집」(2000): 107-120.

5)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5), 847.

6) 배현성, “오순절 성령론에 나타나 통전적 신학 방법론과 그 신학적 함축성,” 「성령과 신학」 한세대학교 교수논문집 제18권(2002): 170.

7) James D. Hamilton, *The Ministry of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2), 19.

1. 성령의 호칭에 나타난 상담적 역할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제3위 하나님으로서 구약에는 성령($\pi\nu\acute{\nu}\eta$)(*ruah*, spirit)에 관하여 86회(ASV) 언급되었고, 신약에서 성령($\pi\nu\epsilon\acute{\upsilon}\mu\alpha$)이라는 단어는 총 261절이 기록되었는데, 복음서에 56절, 사도행전에 57절, 바울서신에 103절, 다른 서신에는 36절이 기록되어 있다.⁸⁾ 성령의 사역은 그 호칭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호칭에는 성령의 인격적 특성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⁹⁾

성령의 다양한 호칭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묘사된 ‘보혜사($\pi\alpha\rho\alpha\kappa\lambda\eta\tau\omicron\nu$, 保惠師)’는 상담적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이름이다. $\Pi\alpha\rho\alpha\kappa\lambda\eta\tau\omicron\varsigma$ 는 동사 $\Pi\alpha\rho\alpha\kappa\lambda\epsilon\iota\nu$ 에서 비롯된 수동적 의미로서 이를 한글로 옮길 때,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도와주는 자(helper)’ ‘변호자(advocate)’ ‘중재자(intercessor)’ ‘상담자(counselor)’ ‘위로자(comforter)’라고 이해되며,¹⁰⁾ 그밖에 ‘청원자’ ‘충고자’ ‘방어자’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¹¹⁾ 또 이 뜻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마음이 약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확대해석하는 자도 있다.¹²⁾ 영어에서 변호사를 의미하는 advocate는 라틴어의 advocatus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이는 라틴 교부들이 $\Pi\alpha\rho\alpha\kappa\lambda\eta\tau\omicron\varsigma$ 를 advocatus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advocatus는 법률적 용어로서 ‘법정에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8) John F. Walvoord,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9–10.

9) John D. Carter,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10) Walter W. Wessel,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0), 30. cf. $\Pi\alpha\rho\alpha\kappa\lambda\eta\tau\omicron\varsigma$ 를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RSV(the Revised Standard Version)와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counselor라고 번역했다. 개편된 the New King James에는 helper라고 번역했고, KJV(King James Version)나 Wycliff 번역에는 comforter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은 ‘위로자’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자’ ‘도와주는 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comforter는 ‘함께’를 의미하는 con과 ‘용기’를 나타내는 forter의 합성어로 ‘용기를 주시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도록 하는 자’ ‘인생의 위기와 격변과 투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4), 665. 하지만 LXX(Septuagint)역에는 이 단어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11) William W. Menzies, “The Holy Spirit as the Paraclete: Model for Counselors”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eds.) (Peabody, MA: Hendrickson, 1985), 25.

12) William Barclay, *The Promise of the Spirit*, 서기산 역, 「성령의 약속」(서울: 기독교문서, 1977), 14.

자'라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¹³⁾ 본디 Παρακλητος는 Hellenistic 시대에 기록된 경외서에 따르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변론해주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하고 그 사정을 대변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했다.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그의 곁에 있거나 전쟁에서 어떤 군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¹⁴⁾ 또한 Παρακλητος는 격려(살전 2:3, 딤편 4:13, 히 12:5), 권고(고전 14:3), 호소(고후 8:4), 위로(살후 2:16), 위안(롬 15:4)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보혜사는 비지시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로부터 지시적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¹⁵⁾

이러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Παρακλητος가 상담과 매우 관련이 깊은 단어임을 발견하게 된다. 신·구약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역할로 그 범주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의 주요 역할 가운데 상담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을 묘사하는 용어 Παρακλητος에 이미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한글의 개념은 모두 정확하지만 포괄적이지 못하여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본래적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어떤 단어도 진정한 성령의 사역과 그 역할을 충분히 전달해 줄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헬라어 Παρακλητος를 영어로 음역한 *paraclete* 또는 보혜사라고 사용하며, 전술한 모든 개념을 내포한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성령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격적 존재로서 인지적, 감성적, 의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¹⁶⁾ 이러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은 변화의 영(Spirit)이므로 그의 사역은 그 존재 특성과 같이 인간의 인지적, 감성적, 의지적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분석해 볼 때, 그가 나타난 곳마다 사람들은 인격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13) Kittel, Gerb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번역위원회 역, 「신약성서신학사전」(서울: 요단출판사, 1986), 593.

14) Lloyd John Ogilvie, *The Greatest Counselor in the World*, 한재희 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서울: 이레서원, 2001), 24.

15) Francis Bridger, David Atkinson, *Counseling in Context*, 이정기 역, 「상담신학」(서울: 예영미디어, 2002), 300.

16)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c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np: NAV, 1993), 257. cf. Menzies, 28. cf. George Johnston, *The Spirit Paraclete in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1970), 81.

다. 상담자이든 내담자이든 성령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 변화의 원동력임을 인식하는데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¹⁷⁾ 외형적으로 본다면 내담자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담자의 내면에 있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정렬은 커다란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가 성령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임재 당시에 느끼는 인식이 없어도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¹⁸⁾ 기독교상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성령의 사역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성령사역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의미: 성령세례와 성령의 열매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 사건을 당시의 특정한 인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임한, 특수한 사건으로만 한정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이는 보편적 사건으로서 성령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⁹⁾ 오순절주의 조직신학자인 Ernest Williams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의 신자들에게도 나타난다.”²⁰⁾고 보았는데, 이것은 단지 Williams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보편적인 오순절 신학의 입장이며, 은사주의적 견해이기도 하다. 아울러서 성령세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난대로 모든 신자들이 오순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하신 성령이 임하신다고 본다.²¹⁾ 즉 성령세례는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은사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²²⁾으로서 교단적으로 추구하는 오순절주의이거나, 개인적으로 추구하

17) Crabb, 104. cf. Adams도 인간의 Personality의 변화를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보았다. Adams, 21. 또 Thomas C. Oden도 인간의 변화는 상담의 기법이나 분석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동적 사역이라고 보았다. Oden, *Classical Pastoral Care* (Grand Rapids: Baker, 1987), 99.

18) Floyd H. Barackman, *Practice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Kregel, 1992), 216.

19) 은사가 중지되었거나 그쳤다고 주장하는 휴지주의자(cessationist)들은 오순절 사건을 특수한 사건으로 당대에만 국한된 사건이고 특수화시켜 놓음으로써 그 의미의 중대함을 희석, 축소, 제한시켜 놓는 과오를 범했다. 전요섭, 「기독교 치유와 휴지주의」 (안양: 성결대학교 출판부, 2004), 89.

20) Ernest Williams, *The Pentecostal Evangel II* (January, 1961). cf. F. D. Bruner, *The Doctrine and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in the Pentecostal Movement and Correspondingly in the New Testament* (Dissertation: Hamburg, 1963), 36. cf. James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38. cf. Henry I.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Peabody: Hendrickson, 1988), 69.

21) Donald S. Mets. *Speaking in Tongues: an Analysis* (Kansas: Nazarene, 1964), 16

는 은사주의이거나 성령세례의 기독교상담적 의미는 중요하다. 당시 성령세례를 받았던 신자들이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 해결했던 바와 같이, 작금의 현대 신자들이 겪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황 자체는 그 때와 다를지라도 그와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세례 및 그 능력을 힘입게 된다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및 변화 그리고 회복과 치유 등 전인적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악령에 의해서 포로된 내담자들이 그 상태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은 내담자들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며, 불안과 공포, 우울, 강박 등의 감정에 눌린 내담자들은 그것들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맞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상담이다.²³⁾ 초대교회 신앙공동체는 당시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는 이단으로 간주되었기에 정치, 종교, 사회적인 냉대와 위협 속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극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

기독교상담자는 이신론(Deism)을 가져서는 바른 기독교상담을 할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데,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문제해결 및 변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주체임을 확신하고, ‘지금-여기서(now & here)’의 임재를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휴지주의(cessationism, dispensationalism) 일각에서는 성령의 현상들이 사도들의 사역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현상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록도 찾기 어렵다.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작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비성경적인 기독교상담일 수밖에 없다.²⁴⁾

아울러서 성령의 열매와 기독교상담은 매우 유의한 관계성(significant

22) Harold Horton.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Newington: Assemblies of God, 1900), 9-10.

23) William DeArtega. *Quenching the Spirit* (Altamonte Springs, FL: Creation, 1992), 293.

24) James I Packer, *Rediscovering Holiness* (Ann Arbor, MI: Servant, 1992), 218-219.

relationship)이 맺고 있는데,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 인본주의를 막론하고 모든 일반상담의 목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와 적응에 있지만 기독교상담에서 그 목표는 자명한 것으로 성령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초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의 성장, 성숙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삶의 정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성장, 성숙의 개념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바로 전인적으로 성숙, 성장한 사람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인간의 변화는 전인적인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전인적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담하거나, 논쟁적이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등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이러한 감정들을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의 열매로 묘사한 바 있다(갈 5:19). 이는 특히 젊었을 때, 성령과의 빈약한 관계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게 고착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좌절감이 더욱 커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계속해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감정적인 삶 깊숙히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바람직한 변화와 새로운 결심의 원동력이 된다.

3. 인간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

1) 기독교상담과 일반상담의 임계적 개념: 성령

기독교상담과 일반상담은 상담이라는 공통분모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대화한다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상담은 신앙 요소의 활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해결 및 변화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개념이 내포됨으로 일반상담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독교상담을 일반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기독교

교(Christian)라는 서술적 용어, 즉 상담의 장(field)이 기독교 내의 목회이며, 교회이기 때문이다. 목회는 전통적으로 신자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위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앙 요소를 사용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상담 기법이나 상담 이론을 넘어 은혜의 방편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 변화와 회복시키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상담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상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²⁶⁾ 근본적으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²⁷⁾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²⁸⁾

일반상담은 상담에서 대상을 제한하는 일이 없지만, 기독교상담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상담의 대상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범주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미 중생한 자로서 원치 않게 우울, 불안, 공포, 강박, 갈등, 불면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진학, 진로, 가정, 결혼, 이혼, 직장 등의 삶의 정황에서 발생된 문제들, 즉 신앙과 상충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등과의 갈등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삶의 정황에서 발생된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 및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다양한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중생은 일반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시금석 또는 임계적(critical)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만일 내담자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한다고 할지라도 우선적으로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상

25) Lars I. Granberg and others,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67), 76.

26)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61.

27) Martin and Deirdre Bobgan,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109.

28) Edward P. Wimberly, *Pastoral Counseling and Prayer*, 전요섭 역, 「목회상담과 기도」(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15. 심리치료와 상담의 본질은 모두 인간의 성장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상담은 신앙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개념은 일반심리치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cf. Mark Stocks, "Personal and Spiritual Growth,"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eds.) (Peabody, MA: Hendrickson, 1985), 71.

29)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33.

담자는 전도를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인격, 사역 등을 알려주고 그것을 믿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독교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성령의 인격과 그 사역 및 주권을 존중하고 성령이 상담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 구원 받지 못한 상담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상담활동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의 지시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성령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연합을 위해서 중생하게 하는 사역을 담당한다.³⁰⁾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효과적 상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간의 문제해결 및 변화 그리고 회복과 치유에 관여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상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시편 33편 15절의 기록과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게 이해, 분석, 해결,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2) 내담자의 문제 분석 및 개입에 대한 성령의 사역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께서 기독교상담의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상담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는 내용은 성령께서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엡 1:17-18)”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깊이 개입(intervention)하는 것을 반대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Jay E. Adams는 사실상 상담자가 엄정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내담자의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상담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했다.³¹⁾ 하지만

30) Sinclair B. Ferguson,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6), 139.

31)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161.

상담자의 개입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로서의 개입이 아니라 내담자와 성령간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자로서의 개입이다.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담자의 기술과 기법, “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숙 4:6).”는 성경의 기록대로 상담자는 치료자가 아니라 영적 안내자로서 내담자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개입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³²⁾

상담에서 성령이 개입하게 되면 성령을 통한 삶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격의 완성(wholeness of being)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바르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극히 강조하며, 인간 내부에 본래적 선이 내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또는 실존주의적 상담방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비신학적, 비신앙적인 상담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담자의 문제가 상담자의 기법에 의해서 분석되기보다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에 어긋난 것, 즉 죄의 문제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분석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전적으로 그 분을 의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의 역할은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는데,³³⁾ 이 문장 다음의 부연 설명, 즉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9-11).”는 문장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혜사는 인간의 잘못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책망하다(ἐλέγκω)’는 단어는 본디 법적인 용어로서 그 의미는 ‘잘못을 깨닫게 하다’ ‘유죄를 자각시키다’ ‘입증하다’ ‘폭로시키다’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역시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 따라서 이는 Παρακλητος의 사역 목적이며, 동시에 교회의 사역이기도 한데, Παρακλητος는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검사로서 죄를 지적하고,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이다.³⁴⁾ 그러므로 성령은 내담자 자신의 죄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부족 등 진정

32) Charles R. Solomon, *Handbook to Happiness*, 김우생 역, 「영적치유의 핵심」 (서울: 나침반, 2001), 155.

33) ἐλέγξει τὸν κόσμον περὶ(8)

34) Charles Webb Carter, *The Person and Ministr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Baker, 1974), 138.

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하신다.³⁵⁾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은 내담자의 독백같은 기도를 듣기만 하는 비지시적 상담자의 태도는 아니시며, 적극적이며 지시적인 상담자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문제를 성경에 입각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의사나 과학자 또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담자일 수밖에 없다.³⁶⁾ 하지만 성령은 온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내담자를 다루지는 않는다. 내담자 각자의 개인적 특질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로의 초청이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온유한 설득이 그의 사역이시다. 훌륭한 상담은 강제적인 상담이 아니고, 수용적이며, 후원하고, 친구와 같은 부드러움이 있는 상담이며, 내키지 않는 상담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내담자가 맺고 있는 주변의 인물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도 역사하신다.³⁷⁾ 즉 대인관계의 화해(reconciliation)를 위한 중재자가 된다는 의미로서 상호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상담에서 이러한 화해의 사역은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주요 사역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문제해결 및 회복과 치유는 근본적으로 화해에 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적대적 관계에서도 역시 화해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³⁸⁾ 그러므로 상담자는 성령께서는 인간 사이에 있는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자로 하여금 연합하고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로 결합하게 하신다(행 4:32)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Karl Barth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도 성령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화해의

35) William 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194.

36) Michael R. Leming and Geoge E. Dickinson,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Philadelphia: Holt, Rinehart & Winston, 1985), 143.

37) Der Tarr,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eds.) (Peabody, MA: Hendrickson, 1985), 22. Wayne E. Oates도 성령은 인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주장한 바 있다. Oates, *Protestant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190-191.

38) 일반적으로 목회 돌봄(pastoral care)의 기능을 논할 때 크게 네 가지, 즉 치유, 유지, 인도, 화해를 꼽는다. 이는 목회신학자 Seward Hiltner가 주장한 치유, 유지, 인도를 기초로 후에 William A. Clebsch와 Charles R. Jaekle이 화해의 개념을 추가했다.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58), 55-56. Clebsch & Jae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Aronson, 1975), 4.

역할을 강조한 바 있는데, Barth가 이해한 성령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인간을 화해시키는 은혜의 영으로 보았던 것이다.³⁹⁾ 대개 내담자들이 겪는 부정적 감정, 이를테면 우울, 불안, 공포, 강박, 망상, 분노 등 정신신경증적 증상 (psycho-neurotic phenomena)들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은 화해적 관계가 해답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의 화해케 하시는 역할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성령의 중재와 개입의 역할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상담자나 내담자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기 때문에 결국 치료적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간섭하는 개입의 역사를 일컬어 ‘상담에서 거룩한 개입의 역할(the role of divine intervention in counseling)’이라고 한다.⁴⁰⁾ 따라서 상담자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역사에 자신을 맡기는 상담 과정을 통해 성령이 상처받은 내담자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은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잘 듣고, 이해, 분석하도록 상담자에게 통찰력을 갖도록 돕는다. 특히 성령은 내담자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관계를 조명(illumination)해 주고 내담자의 삶에 상처를 주었던 부적절한 성장 장애물들을 제거 또는 극복, 인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⁴¹⁾ 이에 대해서 Richard Dayringer는 상담에서 성령의 역할은 ‘기억나게 하시는 일,’ ‘해석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영감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보았다.⁴²⁾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과거의 관계에 뿌리 박혀서 자신의 삶에 성령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 도와주어야 한다. David A. Seamands에 따르면 성령이 인간의 마음의 껍데기 층을 벗겨내고 마음을 열어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39) Karl Barth, *The Holy Ghost and The Christian Life* (London: Frederick Muller, 1938), 11.

40) Tarr, 12.

41)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상처를 입었던 과거의 사건, 주변 인물, 변경 불가능한 과거의 정황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치료는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Princeton대학교의 목회상담학 교수인 Donald E. Capps는 Reframing이라고 명명했다. Reframing(재구성)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재해석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cf. Donald E. Capps,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1990.

42) Richard Dayringer,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Bringhamton, NY: Haworth, 1998), 20.

록 도와주신다고 주장했다.⁴³⁾ 기독교상담의 효과는 성령이 인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일반심리치로나 상담 또는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상담은 바로 이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상담자, 성령에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담자는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볼 때, 일반상담학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기독교상담에서는 상담자나 내담자가 성령과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되어 문제를 스스로 바로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거나 반영(reflection)하거나 반사(mirroring)했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상담 기술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야말로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제공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근원이다.

3) 인지적 재구성의 요인으로써 성령

심리적 변화 요인으로서의 성령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동변화의 동기를 주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지 않는 동기는 인간적인 것이다. Donald E. Capps의 기독교상담학은 인식의 변환을 촉구하는 재구성(reframing)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⁴⁴⁾ 문제는 항상 ‘I(나)와 ‘S(situation, 상황)’인데, 여기서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을 보는 ‘자신의 시각’ 또는 ‘해석’이므로 이것의 재구성을 통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인식,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43) David A. Seamands,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ctor, 1985), 27.

44) Capps는 기독교상담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 청중의 문제의 확인 (2) 문제의 탐색 (3) 진단적 해석 (4) 목회자의 개입 등으로 이해했다.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46-51.

45) 예를 들면 높은 사다리에 올라서서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중간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볼 때, 이 아이의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아버지가 페인트를 칠하다가 이상해서 아래를 보니 아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개야! 위험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이를 긴장하게 만들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아빠는 “아무개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니? 그래, 아빠가 곧 내려가마! 아래 내려다보지 말고, 사다리를 꼭 잡고 있거라! 그리고 아빠만 쳐다봐!” 이렇게 아이를 안심시켜놓고 아빠가 내려가는 것을 이른바 재구성이라고 한다. 즉 문제를 보는 시각 또는 초점을 달리하는 것, 상황은 똑같지만 상황에 대한

마태복음 14장 23-33절의 내용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를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물 위를 건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신자들은 세상의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짓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그 문제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초점을 옮기며, 사고의 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이 기독교상담이다.

재구성에 대한 다른 사례는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내용에서 발견된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된 것,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된 것 등은 마음의 상처였고 배신, 분노, 억울, 슬픔, 좌절의 경험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인간사에서 이보다 큰 아픔을 겪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고통의 경험이였다. 하지만 그는 과거 사실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인식의 재형성, 재구성을 했던 것이다. 객관적으로 분석컨대 이런 원인 제공자들은 사실 요셉의 형들처럼 보이나 그는 이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흉년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긍정적 인식으로 재구성하며, 형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않게 된다(창 45:5).⁴⁶⁾

이러한 재구성을 하나의 치료 기법으로 활용하는 일반 상담학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REBT)인데 이는 스토아 철학자였던 Epictetus(A.D. 50-130)의 사상인 “인간은 사물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취하는 관점에 따라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에 근거를 두고 Albert Ellis가 제작한 이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재구성이다. 죽음을 당한 사람은 죽음의 문제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오직 그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 한 우울, 슬픔, 낙심, 좌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구성이란 그 죽음의 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망함으로써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Capps는 이 기법을 기독교상담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Capps, *Reframing*, 9.

46) 여기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재구성은 (1) 이신론(deism)을 부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지금-여기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인식 (2) 어떤 사건이 단적으로 자신에게 피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능력이 있으신다는 인식 (3)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었거나 유익될 것이라는 인식 (4)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관련자에 대한 분노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분노를 나타내지 않기로 인식하는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이 악역을 맡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더 악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을는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구성 기법이 상담에 반영될 때, 내담자들은 삶의 정황 속에서 발생된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Burkle은 “모든 위기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 R. Burkle, *God, Suffering and Belief* (Nashville: Abingdon, 1977), 121.

론이다.⁴⁷⁾ 하지만 REBT는 비기독교적 상담 방법으로서 기독교상담에 역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능숙한 상담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거하시며, 문제해결 및 변화, 회복과 치유 그리고 성장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사고를 재구성시키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독교상담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을 강조한 기독교상담이라 하여, 상담자의 상담기술이나 기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성령의 마술적 변화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James I. Packer는 모든 문제가 다 즉각적인 기적, 초자연적 현시, 모든 것을 삼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섭리에 의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좋은 표시가 아니라 아주 미성숙한 표시가 된다고 분석했다.⁴⁸⁾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 변화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면 진정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법의 문제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인식, 기대하면서 상담을 한다면 방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약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담 활동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져 올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기술, 훈련, 지식, 통찰력을 내담자를 돕는 일에 적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심리적인 안정과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돕는 사람이다.⁴⁹⁾

따라서 성령충만한 상담자가 성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효과적인 상담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문제에 빠진 신자들로 하여금 시선을 어디에 두도록 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내담자의 사고와 시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을 이른바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7)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n,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1), 173. Epictetus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Epictetus, *The Enchiridion*, Thomas Higginson (tr.) (Bobbs-Merrill, 1948), 19-22. 재구성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한 학자는 Donald E. Capps, William Backus, Marie Chapian, Chris Turman 등이다.

48) Packer, 214.

49) Gary R. Collins,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Dallas: Word, 1991), 4.

4)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는 성령의 고유한 기능이며, 중요한 사역이다. 이 사역을 Παράκλησις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격려’ ‘위로’ ‘충고’ ‘애원’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⁵⁰⁾ 이러한 성령의 위로는 신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야말로 삼위 중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우신 분으로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⁵¹⁾ 이러한 인식 자체만으로도 내담자는 마음의 안위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심리학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⁵²⁾ 심리학적 안위는 극히 부분적인 치료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의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최근 Lawrence J. Crabb을 비롯해서 ‘격려 상담’⁵³⁾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상담에서 격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극복은 단순히 상담자의 위로나 격려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진정한 위로자이며, 격려자를 성령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고, 그를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배우며,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그와 더불어 화해하고, 그와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단과 해결을 가져오도록 돕는 자이어야 한다.

Charles R. Solomon은 심리치료의 목적은 사람들을 더욱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더욱 약해져서 의존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므로 심리치료는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며, 성령의 사역을 가로채 버리는 것이라고 비평했다.⁵⁴⁾

5) 성령의 요청을 위한 기독교상담자의 역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청취

50) Walvoord, 170-171.

51)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5), 846.

52) Lawrence J. Crabb,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Meeting Counseling Needs through the Local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75), 11-12.

53) Lawrence J. Crabb & Dan B. Allender, *Encouragement: The Key of Caring*, 오현미, 이용복 공역, 「격려를 통한 상담」, 서울: 나침반, 1994.

54) Solomon, 27.

자(listener)가 아니다. 또한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지지자(supporter)도 아니다. 아울러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반사적 거울(reflector)도 역시 아니다. 이같은 청취자, 지지자, 반사적 거울 등의 개념은 인본주의 상담학의 핵심적인 기법으로서 성경적 상담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우선 상담자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바른 기독교상담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이 상담자의 상담자가 되어서 상담자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야만 바른 상담이 될 수 있다.⁵⁵⁾ 상담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최상의 상담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는 내담자가 되거나 학생이 되어 진실되게 비평, 교정,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상담자의 상담자가 성령이며, 성령은 궁극적인 상담자이다.⁵⁶⁾ 상담자는 치유와 성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상담에 대한 기법적인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독교상담에서 상담자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의뢰하는 것을 내담자에게 보여주거나 그에게 인식시켜 그분을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치료 과정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치료에 임함으로써 내담자가 상담에 충분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에서도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을 어떻게 초청하며, 상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해결과 기대수준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성령이 인간의 변화를 이루시는 주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동의와 응답적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 성경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되는데 성경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안이 된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성경을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의 독특성과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일반상담과의 구별을 나타낸다.⁵⁷⁾ 대개의 기독교상담자

55) June Hunt, *Biblical Counseling Key*, 최복순 역, 「성경적 상담의 열쇠」(서울: 프리셉트, 2001), 9.

56) Stephen Pattison, *A Critique of Pastoral Care* (SCM, 1988), 116.

57) David G. Benner, "Psychotherapy & Christian Faith," in *Psychology & the Christian*

들은 상담에서 성경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으나 이에 대한 바른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자는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성경으로부터 그의 삶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탈되었는지를 비교, 분석, 통찰,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의 지침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기준 자체가 모호한 답변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게 되거나 극히 피상적이거나 적절치 못한 말 또는 상담자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에 기초한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어 결국은 비성경적 상담이 되고 만다.⁵⁸⁾ 상담에서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기초하여 보지 않고 상담자 임의대로 이해하거나, 혹은 무시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신의 삶을 그 의도에 맡기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상담자의 역할은 자명한 것으로서 내담자와 더불어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이 상담에 활용되도록 하여 성령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또는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자의 성경 인식,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성경이 인간의 문제를 답해 준다는 인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시킬 때, 내담자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성경을 인용하거나, 성경구절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민감해지는 것은 필수적이다.⁵⁹⁾

성경을 떠난 상담은 성령을 떠난 상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담에서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기독교상담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담자는 성경에 절대적으로, 아무 의문없이 복종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과도 같은 것이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의 사역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기준인 성경을 인간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 바로 잡아주도록 상담자를 사용하시므로 성령은

Faith, Stanton L. Jones (ed.) (Grand Rapids: Baker, 1986), 157.

58) Kenneth Stafford, *Handbook for Other*, 강승문 역, 「기독교상담 핸드북」(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23-25.

59)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전요섭 역, 「위기상담학」(서울: 쿰란출판사, 1998), 222.

상담자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지침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도

일반적으로 기독교상담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기도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오용 또는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테면 내담자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거나 그밖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기도와 신앙 요소들이 실제로 상담 과정을 빗나가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내담자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상담자의 통찰을 얻어 문제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의 문제가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상담 중에 내담자의 감정을 잘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상담을 종결하기 전에 사고와 행동수정에서 새로운 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상담자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담자를 위해 상담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 성령과 내담자를 연결하여 문제해결과 회복, 치유 되도록 성령의 임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즉 상담자의 기도는 내담자와 성령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⁶⁰⁾

오순절-은사주의적 입장에서 기도에 대한 견해는 대개 공통적인데, 그것은 집단적 통성기도이다.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하는 활기있는 기도는 오순절-은사주의의 하나의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런 활기있는 기도에는 치료적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통을 지르는 자체만으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심리학이 입증하고 있는데, 통성기도는 단순히 고통지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⁶¹⁾ 이처럼 오순절-은사주의

60) Anderson, 263. cf. Ralph G. Turnbull,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7), 216.

61) 소리를 지르는 것은 현대 심리치료에서 사용되는 요법이기도 하다. 고통 요법(scream therapy)이라고 하여 Arthur Janov가 만든 「원시적 고통」 "Primal Scream"에 기인하는데 Janov는 17년간 일반적 심리치료를 사용했었으나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결정 요소들이 있다는 이론과 유년기의 생활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 무의식 속에 묻어 버린 어릴 때의 충격들을 알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신분석의 기본적 개념에다 자신의 이론을 합쳐 원시적 비명 치료법을 만들었다. 원시적 비명 치료법은 의식 세계에서 무엇을 억제하든지 제거할 때, 심리적 질병이 생긴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Janov는 1960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에 있는 Claremont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박사(Psy.D.) 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담소를 개업했다. 그는 1970년에 「원시적 고통」이라는 책을

의 성격은 명백한 것으로서 기독교상담에서 문제해결과 회복의 요인으로서 성령을 핵심으로 하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 용기와 담력과 능력을 얻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상담자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일반심리치료에서나 기독교상담에서나 공히 고백(告白, self-disclosure)은 치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심리치료에서의 고백은 상담자에게 또는 집단상황에서 공개적 고백을 통해 치료를 체험하려고 시도한다. 그렇지만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신뢰(rapport)가 형성되지 않으면 고백은 어렵게 된다. 다그치거나 설득한다고 하여 자신의 치부를 쉽게 드러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의 치료적 효과가 높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뇌에 있는 정보가 언어로써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각자의 제어장치 및 여과망(filter)에 의해서 걸러져 나온 단어가 말로 나오게 된다.⁶²⁾ 제어장치라는 것은 불순물이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상 등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고백을 했다고 해도 그의 다양한 내면의 제어장치(neurological constraints, social constraints, individual constraints)가 본능처럼 작용되어 인간 앞에 솔직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⁶³⁾ 그러므로 상담자는 성령께서 인간의 제어장치를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자비하심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성령의 도움으로 그 분 앞에 억압 기제들을 제거하고, 부끄러움 없이 진술한, 가감없는 고백이 나타나도록 도와야 한다.⁶⁴⁾ 시편 17편 1절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과 같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은 진정한 고백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는 사역이며, 내담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쓰고 20만부 이상 팔았다. 그는 미국 L.A.에 근본치료 연구소(Primal Institute)라는 것을 세워 이것을 가르치고, 치료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원시적 고향 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뉴욕(New York)에도 이 연구소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62) James F. Engel, *How to Start Counseling*. 정진환 역,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서울: 조이선교회, 1996), 41.

63) Engel은 이 제어장치에 대해서 (1) 세계관 (2) 학력(지식)과 경력(경험) (3) 신조(신앙)와 태도(삶의 자세) (4) 개성 등이라고 보았다.

64) 고백은 헬라어로 ὁμολογία라고 하는데 이 말은 ὁμο라는 단어와 λογία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ὁμο는 동질성이라는 영어 단어 homo라는 단어를 낳았다. λογία는 말을 뜻하는 단어이다. 즉 ὁμολογία는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이 한 일, 가졌던 감정 이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백을 상담자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한다. 하지만 고백이라는 것은 기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것을 고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자신이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백하기 어렵게 된다. Dayringer가 진술한 바와 같이 상담에서 성령의 역할은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⁶⁵⁾ 그것을 죄가 기억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사역이다. 이것은 일반상담이 추구하는 것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백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통성기도이든 고백의 기도이든 상담에서 기도의 활용은 일반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들은 할 수 없는, 오직 기독교상담자만이 문제해결을 위해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⁶⁶⁾ 기독교상담은 그 과정에서 명백하게 신앙적인 방법에 그 관심과 주의를 쏟아야 한다. 실제로 성령의 인도와 기독교상담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이 서로 수렴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III. 맺는 글

기독교상담과 성령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기독교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양자 사이에서 신앙을 잇게 하고 공동체로 묶어주는 일로서 이는 당연히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상담은 성령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할 수 없다. 상담자, 내담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항상 역동적이며, 효과적이고 바른 기독교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이 치료와 치유의 주체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야 하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하여 진정한 치료와 치유의 주체로서 성령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와 성령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성령이 기독교상담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심리치료나 상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서 치료의 주체를 내담자 스스로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이나, 상담자를 치료의 주체로 생각하는 지시적 입장과는 다른 것

65) Dayringer, 20.

66) Russell L. Dicks,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63), 102.

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상담의 주체로 인식한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자 자신의 상담 기법으로만 내담자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음을 인식하고, 성령중심적 상담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야말로 진정한 상담자이며, 상담자는 단지 그 분의 사역에 보조자로 활동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의 변화, 문제해결 및 회복과 치유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에서 자기 자신의 상담 기법이나 경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효과적 상담을 할 수 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내담자의 죄를 스스로 직면(**confrontation**)할 수 있도록 하며, 내담자의 마음에 작용하여 진정한 회개와 참회로 인도할 수 있으신 분이시므로 내담자에 대한 분석기법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분석하시는 역사를 인식하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어떤 특정부분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와 상담자가 행할 때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상담의 시종 전체적인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Zondervan. 1970.
- _____.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 _____.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 Barclay, William. *The Promise of the Spirit*. 서기산 역. 「성령의 약속」 서울: 기독교문사. 1977.
- Barth, Karl. *The Holy Ghost and The Christian Life*. London: Frederick Muller. 1938.
- Benner, David G.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92.
- _____. "Psychotherapy & Christian Faith." in *Psychology & the Christian Faith*. Jones, Stanton L. (ed.) Grand Rapids: Baker. 1986.
- Bruner, F. D. *The Doctrine and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in the Pentecostal Movement and Correspondingly in the New Testament*. Dissertation: Hamburg. 1963.
- Burkle, H. R. *God, Suffering and Belief*. Nashville: Abingdon. 1977.
- Burwash, N. *Wesley's Doctrinal Standards*. Salem, OH: Schmul. 1988.
- Capps, Donald E.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1994.
- Carter, Charles Webb. *The Person and Ministry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Baker. 1974.
- Carter, John D., Narramore, Bruc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 Charles R. Solomon. *Handbook of Happiness*. Wheaton: Tyndale. 1971.
- Clebsch, William A. & Jaekle, Charles R.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Aronson. 1975.
- Collins, Gary R.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IL: Creation. 1976.
- _____. *The Biblical Basic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np: NAV. 1993.
- _____.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Dallas: Word. 1991.
- Crabb, Lawrence J.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Meeting Counseling Needs through the Local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75.
- _____. & Allender, Dan B. *Encouragement: The Key of Caring*. 오현미, 이용복 공역. 「격려를 통한 상담」. 서울: 나침반. 1994.
- Dayringer, Richard. *The Heart of Pastoral Counseling -Healing through Relationship*. Bringhamton, NY: Haworth. 1998.
- DeArteaga, William. *Quenching the Spirit*. Altamonte Springs, FL: Creation. 1992.
- Dicks, Russell L.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63.
- Dunn, James D. G. *Baptism in the Holy Spirit*.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 Engel, James F. *How to Start Counseling*. 정진환 역.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서울: 조이선교회. 1996.
- Epictetus. *The Enchiridion*. Thomas Higginson (tr.). Bobbs-Merrill. 1948.
-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5.
- Ferguson, Sinclair B. *The Holy Spiri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6.
- Gerb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번역위원회 역. 「신약성서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Granberg, Lars I. and others.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67.

- Hamilton, James D. *The Ministry of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72.
- Hiltner, Seward.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1958.
- Horton, Harold.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Newington: Assemblies of God. 1900.
- Hulme, William E. *Counseling & Theology*. Philadelphia: Muhlenberg. 1956.
- Hunt, June. *Biblical Counseling Key*. 최복순 역. 「성경적 상담의 열쇠」. 서울: 프리셋트. 2001.
- Jones, Stanton L. & Butmann, Richard E. *Modern Psycho-therap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1.
- Johnston, George. *The Spirit Paraclete in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1970.
- Kirwan, William T.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 Lederle, Henry I. *Treasures Old and New*. Peabody: Hendrickson. 1988.
- Leming, Michael R. and Dickinson, George E.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Philadelphia: Holt. Rinehart & Winston. 1985.
- Martin and Bobgan, Deidre.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 Menzies, William W. "The Holy Spirit as the Paraclete: Model for Counselors."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Marvin G. Gilbert & Raymond T. Brock. (eds.) Peabody, MA: Hendrickson. 1985.
- Mets, Donald S. *Speaking in Tongues: an Analysis*. Kansas: Nazarene. 1964.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4
- Oates, Wayne E. *Protestant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62.
- Oden, Thomas C. *Classical Pastoral Care*. Grand Rapids: Baker. 1987.
- Ogilvie, Lloyd John. *The Greatest Counselor in the World*. 한재희 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 서울: 이레서원. 2001.
- Packer, James I. *Rediscovering Holiness*. Ann Arbor, MI: Servant. 1992.
- Pattison, Stephen. *A Critique of Pastoral Care*. SCM. 1988.
- Phillips, Keith. *The Making of a Disciple*. 전요섭 역. 「제자 양육론」. 서울: 솔로몬. 1996.
- Seamands, David A. *Healing of Memories*. Wheaton, IL: Victor. 1985.
- Stafford, Kenneth. *Handbook for Other*. 강승문 역. 「기독교상담 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Solomon, Charles R. *Handbook to Happiness*, 김우생 역, 「영적 치유의 핵심」. 서울: 나침반. 1981.
- Tarr, Der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Gilbert Marvin G. & Brock, Raymond T. (eds.) Peabody, MA: Hendrickson. 1985.
- Turnbull, Ralph G. (ed.)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7.
- Stocks, Mark. "Personal and Spiritual Growth." in *The Holy Spirit and Counseling*. Gilbert. Marvin G. & Brock. Raymond T. (eds.) Peabody, MA: Hendrickson. 1985.
- Underwood, Ralph. *Pastoral Care and the Means of Grace*. Minneapolis: Fortress. 1993.
- Walvoord, John 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 Wessel, Walter W.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60.

- Wimberly, Edward P. *Pastoral Counseling and Prayer*. 전요섭 역. 「목회상담과 기도」.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 Wright, H. Norman. *Crisis Counseling*. 전요섭 역. 「위기상담학」. 서울: Kumlan출판사. 1998.
- 마원석. “구약의 관점에서 본 현대 성령론.” 한국오순절신학회, 「논문집」. (2000).
- 배현성. “오순절 성령론에 나타나 통전적 신학 방법론과 그 신학적 함축성.” 한세대학교, 「성령과 신학」. 교수논문집 제18권(2002).
- 전요섭. 「기독교 치유와 휴지주의」. 안양: 성결대학교 출판부. 2004.



Abstract

Holy Spirit's Work for Client's Change

Joseph Jeon(Ph.D)

This research is to clarify on Holy Spirit's works in individual Christian counseling for a client's change. Secular psychotherapy is unable to solve client's problems fundamentally and effectively. Evangelical counseling ought to use not psychological technique but means of grace. Holy Spirit has to be found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Ultimate purpose of Christian counseling is to be effective change of a client. Counseling without Holy Spirit is not useful counseling for a church. Secular counseling was based on the psychotherapy that ignores work of Holy Spirit. Accordingly, Christian counseling does not accept secular psychotherapy totally. Those who counsel biblically recognize Holy Spirit as the main body of clients' change. Fundamentally, intervention, analysis, restoration, and change for a client are work of Holy Spirit.

Key words: change, Holy Spirit, Christian counseling, client, evangelical counseling.